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PORTRAIT OF AUTUMN

KBS교향악단 제795회 정기연주회  
로망스, 가을을 물들이다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바이올린 | 길 샤함 Gil Shaham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더클래스호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3.10.26. (THU) 20:00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2023.10.27. (FRI) 20:00

# PROGRAM

## 로망스, 가을을 물들이다 / Portrait of Autumn

### 바버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14

🕒 25'

#### S. Barber | Violin Concerto, Op.14

1악장 빠르게 (12')

Allegro

2악장 느리게 (9')

Andante

3악장 움직임을 가지고 매우 빠르게 (4')

Presto in moto perpetuo

###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 월튼 | 교향곡 제1번 b $\flat$ 단조

🕒 43'

#### W. Walton | Symphony No.1 in b $\flat$ minor

1악장 매우 빠르게 (13')

Allegro assai

2악장 매우 빠르게, 악의적으로 (7')

Presto, con malizia

3악장 느리고 멜랑콜리하게 (10')

Andante con malinconia

4악장 위엄을 가지고 - 힘차고 대담하게 - 쾌활하고 매우 빠르게 (13')

Maestoso - Briosio ed ardamente - Vivacissimo

PIETARI INKINEN  
Conductor



##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 - &lt;그라모폰&gt;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잉키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최근 2025년 6월까지로 임기를 연장하였다.

그는 베를린 슈타츠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2021, 2023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를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와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 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그의 지휘 아래 테너 사이먼 오닐과 함께한 바그너의 아리아들과 관현악곡 앨범, 요하네스 모저와 함께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제1번과 브리튼의 첼로 교향곡 음반도 주목할 만하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발취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작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쾰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Kaupo Kikkas

 @pietariinkinen  
 facebook.com/PietariInkinen  
 pietariinkinen.com

GIL SHAHAM  
Violinist



## 바이올린 | 길 사함

## “오늘날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 - &lt;뉴욕 타임스&gt;

길 사함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만의 따뜻함과 너그러운 정신이 결합된 훌륭한 테크닉으로 미국 거장으로서의 명성을 굳혔다. 1971년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는 루빈 음악 아카데미에서 새뮤얼 번스타인 사사로 바이올린을 시작하였고, 미국-이스라엘 문화 장학금을 받으며 수학하였다. 1981년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데뷔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이스라엘 클레어몬트 콩쿠르에서 1위에 올랐다. 이후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수학하였으며,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학업을 이어갔다.

베를린 필하모닉, 보스턴 교향악단, 시카고 심포니, LA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주기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몬트리올, 슈투트가르트 및 싱가포르 오케스트라의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길 사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35개 이상의 음반을 발매한 아티스트로서 그래미 어워드, 그랑프리 뒤 디스크 상, 황금 디아파종 상,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등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하였다. 20세기 작곡된 바이올린 협주곡들을 중심으로 광활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발매한 음반으로는 2022년 2월 발매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앨범이 있다.

1998년 제41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실내악 상을, 2008년 미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에이버리 피셔 상을 수상한 그는 각종 협회의 후원으로 1699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Countess Polignac”과 크레모나 c.1719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 바버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14

S. Barber | Violin Concerto, Op.14

작곡연도	1939-1940년
초연	1941년 2월 7일, 미국 필라델피아
편성	플루트2(제2주자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팀파니, 스네어드럼, 피아노, 현5부
연주시간	약 25분

미국의 ‘국민 작곡가’를 꼽으라면 새뮤얼 바버(1910-1981)는 단연 1순위로 거론될 인물이다. 물론 이는 ‘대중성’을 전제로 한 얘기다. 사실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로 에런 코플랜드(1900-1990)를 빼놓을 수 없지만, 그조차도 불협화음과 실험적 사운드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온전히 환영받지는 못했다. 반면 바버는 코플랜드와 정반대 노선을 취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위시하여 그가 남긴 곡들을 살펴보면 대략 전체 작품의 3분의 2 정도가 서정성을 담보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 작품에서 들을 수 있는 바버 특유의 기이한 운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반음계는 여전히 현대적인 음악 어법을 놓치지 않고 있다. 낭만주의와 현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바버의 행보는 동시대 다른 작곡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중성이다.

오늘 연주되는 바버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중적인 작품이다. 1·2악장은 낭만과 서정이 넘치는 반면, 마지막 3악장은 극한의 테크닉을 과시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1939년 사업가 새뮤얼 펠스가 자신의 양아들 이소 브리셀리를 위해 바버에게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해달라고 의뢰했다. 브리셀리는 바버와 커티스 음악원 동문인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펠스의 후원 아래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앞두고 있었다. 1천 달러의 위촉료 중 선금 5백 달러를 받고 바버는 바로 작곡에 착수했고 그해 10월 1·2악장을 완성해 의뢰인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솔리스트의 기량을 과시하기에 비르투오소적인 요소가 부족하고 디테일이 유치하다는 직설적인 불만이 돌아왔다. 바버는 남은 악장에서 솔리스트의 기량을 선보일 기회를 주겠노라 약속했고 한 달 만에 3악장을 완성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브리셀리는 3악장이 “연주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난했으며, 전체적으로 협주곡이 너무 짧고, 웅장하지 않고, 형식도 부적절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바버는 이를 거절했고, 브리셀리는 연주를 거부했으며, 펠스는 나머지 위촉료 5백 달러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들의 거래는 끝났다.

자존심이 상한 바버는 따로 협주곡을 연주할 솔리스트 오디션을 개최했고 (당연히 브리셀리는 초대받지 못했다) 이때 발탁된 커티스 재학생인 허버트 바우멜을 데리고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커티스 오케스트라와 비공식 초연을 했다. 이때 청중들의 열광에 힘입어 1941년 바이올리니스트 앨버트 스폴딩과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공식 초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공연의 성공은 뉴욕 카네기홀 공연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 곡목으로 남아 있는 이 협주곡은 미국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정착했으며 바버 자신의 작곡 인생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작품의 유명세 덕분에 수입이 넉넉해진 그는 생계를 위해 다니던 커티스 음악원에 사표를 냈으며 ‘작곡으로 생계비를 벌 수 있는 20세기 미국의 유일한 작곡가’가 되었다. 한편 협주곡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던 브리셀리와 그의 우정은 여전히 온화하게 유지됐다. 다만 브리셀리는 생전에 단 한 번도 이 협주곡을 쳐다보지 않았다.

의뢰인들을 실망시켰던 1, 2악장은 바버 특유의 낭만적인 스타일로 점철되어 있다. 1악장에서 서주 없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시작되는 바이올린 독주는 우아하고 명상적인 멜로디로 풍성하다. 이 사색적인 제1주제는 오케스트라 텍스처와 섞이면서 때로는 더 리드미컬해지고 때로는 소리보다 더욱 강렬한 침묵으로 대응한다. 단순히 솔리스트를 지원하는 반주에 그치지 않고 대등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은 바버가 관현악 작곡의 대가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편 클라리넷이 제시하는 제2주제는 미국 민요를 변용한 것이다. 누에고치에서 황금 실타래를 뽑아내듯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찬란하게 이어지다가 어느덧 목관 악기가 고요히 울리면 악장은 조용히 마무리된다.

2악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제1주제를 연주하는 오보에 독주다. 이어지는 풍성한 현악 텍스처 위로 또 다른 목관 독주가 이어진다. 기다림 끝에 마침내 등장한 독주 바이올린은 제2주제를 연주할 때에야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호른 소리 위로 그저 부유하듯 흘러가는 듯하다. 때때로 들려오는 트럼펫의 리드미컬한 감탄사는 다양한 맥락에서 심포나 마침표, 혹은 느낌표의 역할을 한다. 1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는 우아한 대위법을 엮어낸다.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주제가 고양되어 찬란하게 빛날 즈음에는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을 때와 유사한 정서가 치밀어 오른다. 다시 소리는 잦아들고, 피아니시모로 낮게 깔리는 현악기들 아래로 바이올린 독주는 서서히 사라진다.

3악장은 무궁동\*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전 악장들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생동감에도 짧은 음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연주된다.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가 프레스토로 숨가쁘게 쏟아내는 음표는 마치 회오리바람 같다. 다행히 이 질주는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3악장 악보를 받아 든 브리셀리는 너무 짧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이 정도 강도로 이보다 길게 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불꽃을 튀기며 결말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마지막 장애편처럼 등장하는 인상 깊은 스케르초는 이 협주곡의 백미다.

\*무궁동(無窮動 / moto perpetuo):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기악곡. 종지형(終止形)이 없는 특수한 형식으로, 속도가 아주 빠르다.



## 월튼 | 교향곡 제1번 b♭단조

W. Walton | Symphony No.1 in b♭ minor

작곡연도	1931-1935년
초연	1935년 11월 6일, 영국 맨체스터
편성	플루트2(제2주자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2, 스네어드럼, 심벌즈, 탐탐, 현5부
연주시간	약 43분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올덤이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난 윌리엄 월튼(1902-1983)은 어린 시절 영국 교회 합창의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자이자 노래 교사였고, 작곡가 본인도 열 살부터 옥스퍼드 대학에 속한 크라이스트처치 합창단원으로 활동했기에 그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교회 음악의 울타리 안에 머물 운명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트웰 가문과의 인연은 그의 삶을 급진적인 현대음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월튼은 시트웰 가문의 런던 저택에 15년 동안 기거하며 이 집을 드나들던 부소니, 스트라빈스키, 거슈윈과 같은 동시대 작곡가들과 교류했다. 1923년, 이디스 시트웰과 함께 제작한 <파사드> 초연이 호불호가 갈리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이름은 비로소 20세기 동시대 작곡가 명단에 합류할 수 있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월튼의 음악 어법은 현대적인 과격함이 줄어들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교향곡 제1번은 바로 그러한 전환을 알리는 작품이었다. 월튼으로서는 이례적인 사례인 4년이라는 긴 작곡 기간 끝에 완성된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계기로 작곡가가 전향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월튼은 독일의 미망인 임마 폰 되른베르크와 사랑에 빠짐과 동시에 교향곡 작곡을 시작했으며, 이 사랑은 1934년 임마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으로 끝났다. 사랑의 상처에서 기인한 오랜 답보는 새로운 사랑으로 해결됐다. 월튼은 22세 연상의 앨리스 워본 자작부인과 사귀면서 작곡을 재개했고 이듬해 마침내 교향곡을 완성했다. 작곡가의 사생활과 연루되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교향곡 제1번의 성격은 사실 분류하기 까다롭다. 분명한 점은 화합을 통해 역경에 맞서 승리하는 베토벤식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제1악장은 베토벤 '합창' 교향곡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 성장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과 분노의 화신처럼 다가온다. 신경질적으로 경련하는 바이올린 리듬과 저음 현악 파트의 으르렁거림, 바들바들 떨다가 고조되어 올라가는 담담한 오보에와 바순 등 제1주제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악기가 화가나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애써 주장하는 제2주제가 등장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다가 신경질적으로 붕괴하여 혼란에 빠진다.

제2악장은 ‘con malizia(악의적으로)’라는 독특한 지시어를 지니고 있다. 연인과의 결별로부터 자극을 받아 작곡했다고 월튼 본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악장이기도 하다. 3개의 음표를 기본으로 한 제1주제는 그 와중에도 해학을 잃지 않지만 바이올린과 호른, 트럼펫이 연달아 소개하는 광란의 제2주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다. 불쾌하고 비열하게 뒤틀린 심정은 마치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은 작곡가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울화를 맘껏 터뜨리고 난 뒤 호흡을 가다듬고 시작되는 제3악장은 한층 차분해져 있다. 하지만 ‘con malincolia(멜랑콜리하게)’라는 지시에 부응하듯 이번에는 자기연민에 빠져 우울의 동굴을 파고든다.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관현악 텍스처 위로 플루트가 애절한 심정을 길게 풀어내는데, 이 선율은 작곡가가 1악장에서 사용했던 알레그로 주제이다. 씩씩한 후회에서부터 무거운 번뇌에 이르기까지 우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며 음악은 변주곡으로 진화한다. 마침내 다시 돌아온 플루트 선율을 신호로 음울한 애수는 쿵광거리는 화음에 굴복하며 막연한 불안을 남기고 사라진다.

슬픔과 분노를 모두 분출해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듯, 제4악장은 웅장한 상승 모드로 새 출발을 선언한다. 빠르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찬란한 화음이 3악장 끝에 아련하게 남아 있던 일말의 불안마저 해소한다. 활기차고 경쾌한 제1주제 이후 재즈풍의 제2주제가 푸가 형식으로 힘차게 진행된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팀파니와 탐탐이 터져 나오는 환희와 기쁨을 표현한다. 이를 분기점으로 솔로 트럼펫이 조용히 제1주제를, 목관악기가 제2주제를 되새김질하면서 음악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지만 곧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걱정을 되찾고 비장한 환희를 분출하며 대단원을 맞이한다.

글 | 노승림(음악 칼럼니스트)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공연의 협연자, 바이올리니스트 길 사함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새뮤얼 바버(1910-1981)



1910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생

정교하고 풍부한 화성 속에 미국인의 낭만적 정서를 잘 담아낸 작곡가. 성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미국 가곡 발전에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1924-1931년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서 지휘와 작곡, 성악을 공부하다

1935년 NBC 라디오에서 자신의 작품 '도버의 해변'을 직접 불러 녹음하다

1936년 로마 아메리칸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작곡하다

1937년 <관현악을 위한 에세이>가 이듬해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연되다

1940년 작곡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성하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육군 항공대에 복무, 비행기의 소음을 활용한 <교향곡 제2번>의 작곡에 착수하다

196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개관을 위해 작곡한 오페라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실패로 5년간 은둔하다

1981년 말년에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작곡 활동이 뜸해졌고, 향년 70세에 암으로 사망하다

S. Barber 주요 작품

- 교향곡 제2번 '비행'(1944)
- 현악 4중주 b단조(1936) - 2악장은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편곡되었다
- 바이올린 협주곡(1940)
- 오페라 <바네사>(1957)
- 발레 <메데아>(1947)

윌리엄 월튼(1902-1983)



1902 영국 올덤 출생

영화음악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합창곡과 관현악곡, 발레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행보를 보인 20세기 영국의 낭만파 작곡가

1912-1918년 합창 학교를 다니며 10대에 성가곡을 작곡하기 시작하다

1923년 잘츠부르크 국제음악제에서 '현악 사중주 제1번'을 발표하며 주목받다

1941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음악박사 학위를 받다

1944년 영화음악 <헨리 5세>로 평단의 호평을 받다

1953년 영국 예술의회의 의뢰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다

1968년 영국 음악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왕실 공로 훈장을 수여받다

1970년대 이후 창작력이 쇠퇴하여 과거의 작품을 개작하거나 소품을 작곡하며 여생을 보내다

1983년 향년 80세의 나이로 사망하다

W. Walton 주요 작품

- 파사드(Façade)(1923)
- 비올라 협주곡(1929)
- 칸타타 '벨사자르의 향연'(1931)
- 교향곡 제1번(1935)
- 교향곡 제2번(1960)
-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1980)

고요와 격정 사이

# From Serenity to Passion

## ARTISTS

지휘 마리오 벤자고 Mario Venzago  
바이올린 미도리 Midori

## PROGRAM

슈베르트 피에라브라스 서곡, D.796  
F. Schubert Fierabras Overture, D.796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Sz.112  
B. Bartók Violin Concerto No.2, Sz.112

슈만 교향곡 제2번 C장조, 작품61  
R. Schumann Symphony No.2 in C Major, Op.61

2023.11.25.(Sat)

20:00

롯데콘서트홀

2023.11.26.(Sun)

16:0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악장 \* 부악장 \*\* 수석 + 부수석 ++**

**제1바이올린**

최병호 \*\*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혜 황선민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광민재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임예지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송윤신\*(미국 휴스턴 심포니 악장)

**호른**

Mischa Greull\*

**트롬본**

Jarod Vermette\*

**KBSSO-KARTS**

**Interns**

**제1바이올린**

노서균 박가은

**제2바이올린**

김유진

**비올라**

김혜민 황주은

**첼로**

심수연 유세빈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주임 김민중 사원 손명조 인턴 장수빈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민

공연사업팀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대리 이미래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인턴 김문정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사원 정태양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http://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